

## 한·카타르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알 아티야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파이살 알 타니 기업인연합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카타르 경제포럼’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 양해각서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국 경제인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협력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카타르의 발전 속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마드 국왕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매년 20%가 넘는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WTO DDA 협상으로 널리 알려진 이곳 도하는 세계

화의 상징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안게임을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대하게 치러 냄으로써 카타르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곳에 도착했지만 ‘카타르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1,350억 달러를 투입하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 국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카타르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고 계신 경제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저는 이번 중동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GCC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 협력포럼 확대 등을 담은 ‘21세기 한·중동 미래협력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마드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구상과 동반자 관계 구축은 중동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이뤄 가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카타르와의 협력 확대에 큰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1974년 수교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준 든든한 친구이자 소중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서로 윈-윈 하는 협력사업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조선 분야입니다. 카타르는 한국이 사용하는 LNG의 최대 공급 국가입니다. 이번 저의 방문 기간에도 향후 20년간에 걸친 장기 LNG 도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카타르 LNG선의 최대 공급 국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산 LNG선이 카타르 에너지산업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LNG 선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조선업체는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건설·플랜트·산업단지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라스라판 산업도시'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업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기술력, 성실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우리 기업은 언제나 계약내용 이상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책임 있게, 좀더 신속하게, 그리고 하나라도 더 많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에너지 생산설비, 신도시, 신공항, 도로, 항만, 하수처리시설에 이르기까지 지금 카타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면 그것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성공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IT협력 약정을 체결한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도하아시안게임 때 우리 기업이 핵심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맡기도 했습니다만 IT 분야는 양국 협력 관계의 지평을 넓혀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건축 및 IT 전시회'에 가 보시면 와이브로, DMB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IT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가진 첨단 기술력이 카타르가 추진하고 있는 U-시티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인구 50만 명 규모의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환경·문화·정보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집적시켜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U-시티 사업에 참여하면 이러한 기술과 경험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한가운데에서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IT 기반, 투명하고 개방된 시장, 물류 인프라,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제도적 환경, 어느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타르 경제인 여러분, 한국경제의 미래를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과 투자협력약정도 체결했습니다.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양국 경제인 상호 간의 투자가 매우 수지 맞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경제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